

제 목	국 문	응급센터 내원 환자들의 응급정도에 관한 비교연구		
	영 문	A study on the emergent illness degree of the patients visited to emergency center		
저 자 및 소 속	국 문	정영순, 남해성, 최진수, 김병우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영 문	Young Soon Jeong, Hae Sung Nam, Jin Su Choi, Byung Woo Kim <i>Chonnam University Medical School</i>		
분 야	역 학	발 표 자		
발표 형식	포스터	발표 시간		
진행 상황	연구완료 (○), 연구중 () → 완료 예정 시기 : 년 월			
<p>1. 연구 목적</p> <p>매년 종합병원 응급실 내원환자는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어떤 환자에서 정작 신속한 응급진료가 필요한가에 대한 뚜렷한 기준은 없는 실정이다. 이에 저자는 응급실 본연의 제 기능 및 효과적인 운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시행규칙'에 해당하는 응급환자와 의학적으로 신속한 응급처치가 필요한 환자로 분류되는 '응급의료 관리료 산정지침'에 해당하는 응급환자들의 특성과 그 차이를 파악하고자 했다.</p> <p>2. 연구대상 및 방법</p> <p>1995년 2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 1개월동안 광주 기독병원 응급센터에 내원했던 15세이상의 환자 1012명중 기록이 불충실하거나 내원 즉시 퇴원하였던 63명을 제외한 949명을 대상으로 응급실 기록부, 의무 기록지 등을 토대로 하여 응급의료법 시행규칙(이하 '규칙')과 응급의료 관리료 산정지침(이하 '지침')에 따른 응급환자들의 특성을 검토하였다.</p>				

3. 연구결과

‘규칙’에 해당하는 환자는 630명(66.4%)이었으며, ‘지침’에 해당하는 환자는 458명(48.3%)이었다. 양자에 해당하는 경우는 328명(34.6%)이었고, 양자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는 189명(19.9%)이었다.

표 1. 응급환자분류에 따른 요인과의 관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시행규칙에 의한		응급의료 관리료 산정지침에 따른	
	응급환자 630(%)	비응급환자 319(%)	응급환자 458(%)	비응급환자 491(%)
Sex(남)	302(48.0)	169(52.8)	250(54.6)*	221(45.0)
Age(30-50대)	200(31.8)*	137(42.8)	142(31.0)*	195(39.7)
Time(주간)	145(23.0)	65(20.3)	118(25.8)*	92(18.7)
ICPC(외상이 주된 경우)	136(21.6)	72(22.5)	139(30.4)*	69(14.1)
Plan(귀가조처율)	259(41.2)*	171(53.4)	112(24.5)*	318(64.8)

* p<0.05

‘규칙’에만 해당하는 응급환자 302명과 ‘지침’에만 해당하는 응급환자 130명과의 관계를 비교해 본 결과, 남녀비, ICPC(외상이 주된 경우), 귀가조처율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4. 고찰

이상의 결과로 보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시행규칙’에 의한 응급환자의 정의는 그 범위가 상대적으로 더 포괄적이어서 정작 신속한 응급조치가 필요한 중환자의 치료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를 줄 수도 있다. 따라서 법률적 규정에 의한 응급환자의 기준은 보다 현실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수립되어야 한다고 본다.